



“인류가 상호이해 못하면, 문명은 폭력적으로 흘러간다”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학교 조인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의 주제는 ‘1965, 그 회상의 미래’였다. 이 연설에서 조 총장은 설립자 고(故) 조영식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고등교육의 궁극 목표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평화와 복리 증진’이라며 “현대사회의 상징인 ‘우주 시대’, ‘문명 시대’는 다시 한 번 성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출판문화원

조인원 총장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승철 편집장, 최승욱 부편집장

-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런 문제가 50년 전과 외양은 다소 달라졌지만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로 지적한 ‘본질’은 무엇이고, 50년 동안 인류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조연설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IAUP를 먼저 거쳐 가신 총장님들의 연설 수록문을 읽어봤다. 당시의 연설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 인류와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상황에 비추어 봐도 어느 하나 어색한 것이 없었다. 핵무기나 식량문제, 소외된 사람들의 처참한 삶의 질 문제 등이 그것이다. 오히려 부의 편중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고등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이러한 거시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이야기했다. 시대적인 문제들 앞에서 대학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성찰과 전망을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인류가 서로 교감하거나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마음마저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이 과학기술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의식의 개방, 연대, 각성, 공감 등이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고 지난 세월동안 같은 본질에 달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풀어내지 못한 원인이라고 봤다.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50년 전 IAUP 창립회의에서 고(故) 조영식 박사는 고등교육기관, 대학의 역할로 “고등교육의 궁극 목표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평화와 복리증진”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대학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아마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물어봐도 저마다 다 답이 다를 것이다. 하물며 전 세계 대학을 다 놓고 ‘이 시점에 대학이 왜 필요하나’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무수히 다양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자문(自問)이다.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문하는 것처럼, 대학 역시 ‘대학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대학 또한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대학은 우리사회를 위해 적절하고 훌륭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인간의 문제, 보편적인 관심사, 우리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의 문제 등을 조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고등교육기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당장 목전의 학생들은 취업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교수들은 연구도 해야 하고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일상에 지쳐있기 때문에 ‘대학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깊이 해 볼 틈들이 없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요구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감당해야겠지만, 이를 뛰어넘어 인류가 갖는 보편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도 언급했지만, 미래리포트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의 존재 이유로 진리탐구와 같은 전통적 가치보다 ‘자아실현’을 더 중요하게 꼽았다. 반대로 과거 우리나라 대학들은 산업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기에 급급해 보편적 가치의 추구나 ‘자아실현’이라는 가치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아실현이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다만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남의 행복도 생각을 해야 또 행복을 이어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지 않고 내 행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행복을 원한다.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특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타자의 행복에 관해서, 주변에 있는 타자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 사회, 더 크게 보면 인류사회가, 또 더 크게 보면 미래세대에 살아갈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만드는 것도 이 시대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현세대가 취업난에 허덕이고 박봉에 시달리는 것도 이전 세대가 대비를 안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물론 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뜻대로 가진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주제이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는 경계는 ‘인간

작위의 결과’며, 그 작위가 인간세계의 열린 가능성에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학문세계는 학문간의 ‘칸막이’가 아니라 융복합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사제도로는 학생들이 복수전공·다전공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정치학을 생각해보자.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정치를 하거나 정치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도 한 2~30% 안팎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결국 전공과 관련이 적은 사회 곳곳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런 것은 다른 많은 학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공교육이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학생들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제도를 통해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 가령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를 스스로 설정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기업에 취직하기 원하는 학생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더 많이 듣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전공교육을 더욱 많이 이수하게 되면 학업성취도도 높아질뿐더러 향후 그 학생의 장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학과 같은 학과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획일화되고 경직된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희망 진로가 반영된 학점이수제도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대학현안이 궁금하다. 지난해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장선출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교수의회 역시 우리신문과의 간담회에서도 총장선출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총장선출 방식’이 궁금하다.

“현재 우리 대학 정관에 따르면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돼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총장선출 방식’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첫째로는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점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요구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감당해야겠지만, 이를 뛰어넘어 인류가 갖는 보편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훌륭한 총장을 모셨느냐하는 것일 테다.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각각 그 ‘정’을 선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문제는 법적인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결정이다.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실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후보에 대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경희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면서 학교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으로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바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대학구조개혁’과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으로 대표되는 현 교육부의 정책기조는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도 사회의 일부인 만큼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대학의 정원과 학과운영 정책 기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다.

“개인적인 소신은 ‘대학은 결코 정부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물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도 요구하고 대학도 필요로 하는, 더불어 우리 학생들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원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대학 정원 감축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대학으로서 정책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런 부분을 교무위원회와 같이 논의해서 시대의 변화와, 정부정책 변화에 발을 맞추면서도 또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과연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가, 또 대학운영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조인원 총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일 본관 대회 의실에서 진행됐다. 우리신문 백승철 편집장과 최승욱 부편집장이 대화를 나눴다

※ 조인원 총장과의 인터뷰는 예정시간을 넘겨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지면 사정상 그 모든 이야기를 지면에 담지 못했다.

우리 신문은 전체 인터뷰 전문을 ▲1부 IAUP ▲2부 대학현안으로 나누어 대학주 보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이다.